

# 공공·민생·금융 3대 분야 부패척결... 지자체 고위직 감찰도

## 법정부 사정기관 대책회의

방산·해외자원·지역토착 비리...

부기관장 책임관으로 적폐 청산

감사원은 지자체 재정 감사 착수

정부가 사정기관을 총동원해 공공과 민생, 경제·금융 등 3대 분야 적폐 청산에 나서기로 한 가운데 감사원이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실태에 대한 감사에 착수해 주목된다.

정부는 지난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부정부패 척결 관계기관회의'를 열고 범정부적 부패 척결 추진계획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법무부 차관, 공정거래위원회·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국세청·관세청·경찰청 차장, 금감원 수석부원장, 부패척결추진단장(국무총리실 국무1차장) 등 사정 관련 기관의 차관급 인사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회의에서 국가발전과 민생안정, 경제 살리기의 근간을 해치는 대표적인 적폐를 청산하는데 집중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공공 ▲민생 ▲경제·금융 분야 등 3대 분야에서 우선 추진할 과제들을 선정하고,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마련해 즉시 실행에 나서기로 했다.

특히 각 기관은 부기관장을 책임관으로 하고 과별 전담관을 지정해 조직역량을 집중하는 한편 관계기관 간 유기적 협업도 적극 추진해 부정부패 척결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기관별 우선 추진 과제로는 검찰청의 경우 기업 불법 비자금 관련 비리 및 방위사업·해외자원개발 비리, 지자체·지방공기업 등 지역토착 비리, 국가 재정 손실 및 공공부담 비리 등이 꼽혔다.

경찰청은 3대 대표물건(차량·휴대전화·통장) 등 사회적 신뢰 훼손 행위, 3대 악성사기(보이스피싱, 노인·중소상공인 상대 사기) 등 민생침해 비리에 집중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기업자금 유출, 편법 상속·증여 등 변칙적 탈세행위, 불법 대부업자·상습 체납자 등의 탈세 및 재산은닉 행위 근절에 주력한다.

관세청은 무역금융 관련 편취, 국외 재산도피 등 외환 비리, 수출입 가격 조작 등을 통한 무역 비리 등에 집중한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전자금융 관련 정보유출 및 해킹, 국부유출, 정책지원금 및 탈세 관련, 자금세탁 비리, 주가조작, 미공개정보 이용 등 부정부패행위 척결에 나서기로 했다.

공정위는 유통·하도급·프랜차이즈 분야 등의 중소기업·소상공인 권익침해 행위, 생필품 등 국민생활 밀접분야의 가격담합 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한편, 감사원은 23일부터 오는 5월1일까지 100여 명의 인력을 투입해 지방재정 운영실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감사대상은 경기도 등 광역 지자체 10여개, 기초 지자체 60여개를 비롯해 70여개 지자체이다. 5월 중순부터는 행정자치부, 50여개 지자체를 추가해 2차 감사도 실시할 계획이다.

감사원은 지자체의 예·결산 등 회계운영 실태와 주요 사업 등을 중점 점검할 방침이다. 예산낭비, 위법행위에 대해 엄중 조치하고 계획단계에 있는 사업의 타당성을 재검토하는 등 지방재정 건전성에 대한 책임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고위직 공무원이 연루된 비위사건은 특별조사국 감사인력을 투입해 조사하는 등 강도 높은 감찰활동도 병행한다.

감사원은 감사배경과 관련해 최근 복지확대 등으로 재정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반면,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는 낮아지고 부채가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백지경기자 jkpark@연남뉴스



22일 광주를 방문한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윤장현 광주시장, 당 소속 의원 등과 함께 동구 국립아시아문화전당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 “광주, 문화수도 될 때까지 다시 뛰겠다”

### 새정치 표특별법 통과 보고대회

“문화전당 9월 개관 차질 없게

전문인력·콘텐츠 확보 뒷받침”

새정치민주연합 광주시장(박해자 위원장)은 22일 오후 2시 광주 동구 서석동 KT빌딩 대강당에서 당원을 대상으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수정안(이하 특별법) 국회 통과 보고대회를 가졌다.

문재인 당 대표를 비롯한 주승용 최고위원, 강기정 정책위의장 등 당 지도부와 박해자 시장위원장을 포함한 지역 국회의원 및 조영표 시의회 의장과 시·구의원 등 당원 1000여 명이 참석했다.

문 대표는 이날 인사말을 통해 “2월 국회에서 통과하기 힘들었다. 하지만 당 지도부와 지역 국회의원들이 힘과 지혜를 모아 결국 특별법을 통과시키는 성과를 거뒀다”고 설명했다.

이어 “광주가 진정한 대한민국의 문화수도가 될 수 있도록 다시 뛰어야한다”면서 “저와 우리당이 열심히 가속페달을 밟겠다는 약속을 광주시민에게 드린다”고 밝혔다.

문 대표는 “새누리당은 개관이 코앞에 닥쳤는데 문화전당 특별법이 광주법이라며 반대하는 무

책임한 모습을 보였다”면서 “아시아문화전당의 7월 사전 개관과 9월 정식개관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은 충분한 전문 인력과 콘텐츠를 확보하는 것이다. 우리당은 문화전당 특별법으로 그 기반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박해자 시장위원장은 18개월 간의 긴 여정과 새누리당과 정부의 반대로 우여곡절을 겪은 그동안의 과정을 당원들에게 설명했다.

박 위원장은 경과보고에 앞서 인사말을 통해 “수정안 통과를 위해 힘을 모아 주신 광주시민들과 광주시, 지역 국회의원, 당 지도부 모두가 특별법 통과에 주역”이라고 감사의 말을 전한 뒤 “함께 꿈 꿀 때, 그 꿈은 실현가능하기 때문에 새정치연합이 뚝뚝 뭉쳐 지역발전의 꿈, 문화수도 광주의 꿈, 정권교체의 꿈을 반드시 이뤄내자”고 당부했다.

아울러 당 지도부와 지역 국회의원 및 당원들은 이날 행사에서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성공과 진정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광주를 건설하기 위한 콘텐츠 확보, 7대 문화권 조성 사업 등이 차질 없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뜻을 같이하고 이를 위해 총력을 모아 나갈 것을 결의했다.

한편, 지난 3일 국회를 통과한 특별법은 대표 발의자인 새정치연합 박해자 의원을 비롯한 지역정치인과 지역사회가 힘을 합쳤고, 새로 탄생한 지도부가 정치력을 발휘해 빛을 보게 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 32개 기관 943명 민간 인재 경력채용

정부가 올해 32개 기관에 걸쳐 943명의 민간 인재를 경력 채용한다.

인사혁신처는 '2015년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일정을 온라인 공직채용시스템 '나라일터'(http : www.gojobs.go.kr)에 통한 공고한다고 22일 밝혔다.

올해 공무원 경력채용 규모는 32개 중앙행정기관에 걸쳐 4~9급 직원 943명으로 정해졌다. 직급별로는 4급 9명, 5급 48명, 6급 155명, 7급 78명, 8급 51명, 9급 589명, 직급 구분이 없는 전문경력관 13명 등이다.

기관별로는 미래창조과학부(우정사업본부)가 361명으로 가장 많으며, 이어 해양수산부 88명, 경찰청 54명, 법무부 46명, 식품의약품안전처 41명, 산림청 36명, 농림축산식품부 34명 순이다.

이르면 인사혁신처장은 “공채와 경력채용을 균형있게 운영해 공직사회의 경쟁력을 강화할 것”이라며 “많은 민간 인재들이 이번 경력채용에 관심을 갖고 응시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 광주·전남 상생 막힌 물꼬 트일까

오늘 시·도지사 참석 상생발전위원회 상반기 정기회의

윤장현 광주시장과 이낙연 전남지사가 참석하는 광주·전남상생발전위원회 2015년 상반기 정기회의가 23일 오후 광주시청에서 열린다.

이날 회의에는 지난해 10월 출범 이후 첫 회의로, 광주시와 전남도에서 위촉한 자문위원도 참석할 예정이다. 연구원 통합 등 일부 과제가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새로운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지 논의의 결과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22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23일 오후 4시 광주시청 회의실에서 열리는 상생발전위원회 첫 정기회의에 윤 시장, 이 지사, 시·도 고위공직자는 물론 시·도의회 의원, 교수, 사회단체 대표 등 자문위원 각각 10명씩 등이 참석한다. 이들은 지금까지 실무회의에서 논의된 과제들에 대해 현황을 보고받고 이후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최근 시·도는 상생을 위한 실무회의를 갖고 기존 14개 과제와 함께 광주·전남 농부장터 운영, 국제농업박람회 협력 등을 새로운 과제로 발굴한 바 있다.

민간 자문위원들은 이들 과제의 현실성을 검토하면서 구체적인 방법론, 향후 방향성 등을 제시하게 된다. 그동안 공직사회 내부에서만 논의됐던 상생 과제에 대한 외부의 첫 의견 제시인 셈이다.

송상락 전남도 기획조정실장은 “상생발전위원회가 출범한 이후 첫 정기총회라는 점에서 그동안 논의됐던 내용을 종합하면서 동시에 자문위원의 의견을 과제에 반영할 예정”이라며 “일부 과제의 진척 정도가 미진하더라도 상생을 위한 광주시와 전남도의 노력이 광범위하게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 광주지역 자산 1위 금고

# 소액(3억이하) 다수인을 위한 우대 대출 아파트 담보, 분양잔금 대출 특판

한도는  
최고

금리는  
최저

- ✔ 햇살론대출
- ✔ 임대보증금대출
- ✔ 정부정책자금대출
- ✔ 일일상환대출

※ 근저당 설정비, 감정평가 수수료 면제

**서양새마을금고**



서동본점 720-2828



양림지점 652-9203



월산지점 364-7557

